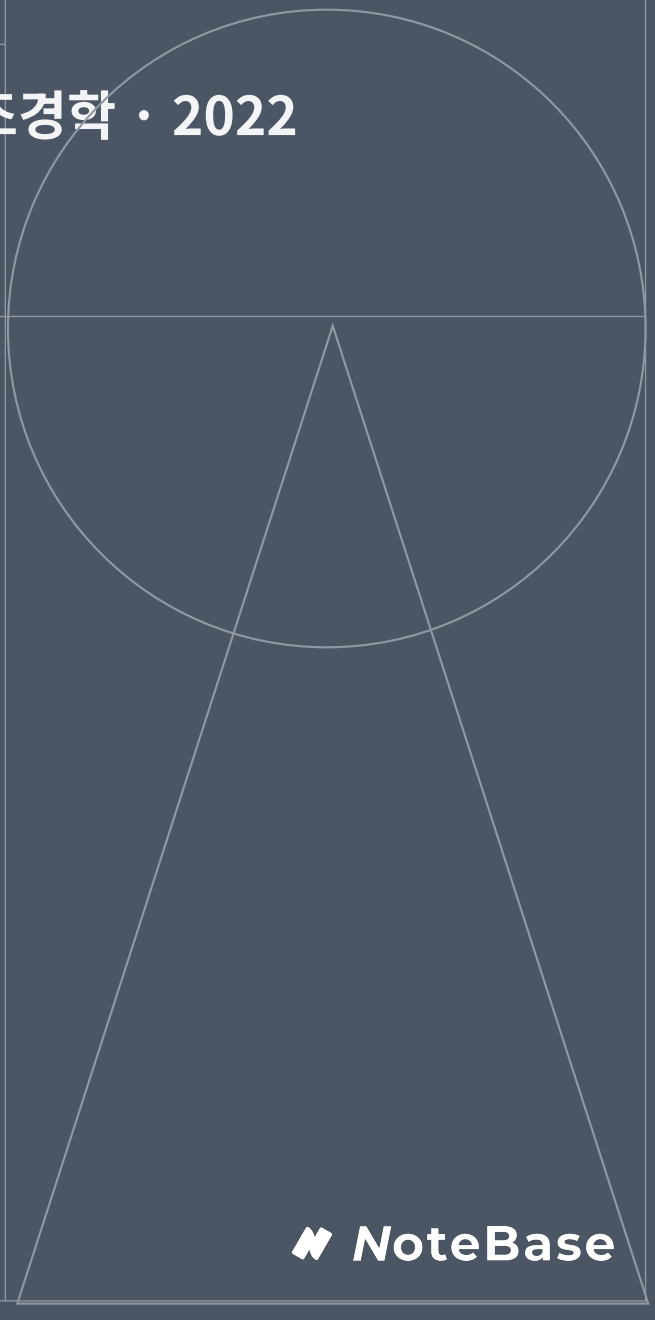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22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22

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대지 면적이 1,200m²이고 건축면적이 480m²(연면적 720m²)인 경우의 건폐율[%]과 조경 면적[m²]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해당 토지에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1,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 1,000m² 이상 2,000m² 미만까지는 10% 이상, 2,000m² 이상인 경우 15% 이상의 면적을 조경 면적으로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음.)

① 40 − 48　② 40 − 60
③ 60 − 48　④ 60 − 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하고, 조경 면적은 연면적에 따른 적용 비율을 먼저 정한 뒤 대지면적에 곱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대지면적: $1,200m^2$
건축면적: $480m^2$
연면적: $720m^2$
연면적이 $1,000m^2$ 미만이므로 조경 비율은 대지면적의 5%이다.

사용할 공식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100
조경 면적=대지면적× 해당 조경 비율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수평으로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건축면적을 사용한다. 조경 비율의 구간은 연면적으로 판정하지만, 실제 조경 면적은 보기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건폐율은 $480 \div 1,200 \times 100 = 40\%$이다.
2. 연면적 $720m^2$는 $1,000m^2$ 미만이므로 조경 비율은 5%이다.
3. 조경 면적은 $1,200 \times 0.05 = 60m^2$이다.

따라서 건폐율과 조경 면적의 조합은 40%-$60m^2$이다.

선지 판단

① X — 건폐율 40%는 맞지만 조경 면적 $48m^2$가 틀리다. 틀린 표현: 40-48 → 올바른 표현: 40-60이다.
② O — 건폐율은 40%이고 조경 면적은 $60m^2$이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③ X — 건폐율 60%와 조경 면적 $48m^2$가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 60-48 → 올바른 표현: 40-60이다.
④ X — 조경 면적 $60m^2$는 맞지만 건폐율 60%가 틀리다. 틀린 표현: 60-60 → 올바른 표현: 40-60이다.

오답 포인트

건폐율 계산에서 건축면적 $480m^2$ 대신 연면적 $720m^2$를 넣으면 60%가 되어 ③이나 ④를 고르게 된다. 또한 연면적은 조경 비율의 구간만 결정하며, 5%를 곱하는 기준은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건폐율을 구한다. 다음으로 연면적을 이용해 조경 비율 구간을 정하고, 그 비율을 대지면적에 곱해 조경 면적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 조경은 연면적으로 비율을 고르고 대지면적에 곱한다.

NoteBase

2. 조경의 시대 변천에 따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② 1900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생기면서 근대적 의미의 조경 교육과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③ 근대적 의미의 조경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④ 우리나라의 조경이라는 용어에 상응하는 말로 일본에서는 원림(園林), 중국에서는 조원(造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 조경의 성립 과정과 한국·일본·중국에서 사용하는 조경 관련 용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대 조경은 도시공원 조성과 전문 교육의 성립을 거치며 독립된 전문 분야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대응 용어는 일본의 조원(造園), 중국의 원림(園林)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미국의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근대 조경의 선구자로서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직업 명칭을 처음 사용한 인물로 설명된다.
② O — 1900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설치되면서 근대적 조경 전문교육이 제도화되고 조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③ O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조경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에 조경에 관한 교육과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일본과 중국의 대응 용어를 서로 바꾸어 쓴 것이다. 올바르게는 일본에서 조원(造園), 중국에서 원림(園林)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원림과 조원이 모두 한자 문화권의 조경 관련 용어라는 점을 이용해 국가를 뒤바꾼 선지이다. 용어 자체보다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의 시대 변천 문제에서는 인물·연도·국가별 용어를 각각 짝지어 판단한다. 특히 동아시아 용어는 일본-조원, 중국-원림의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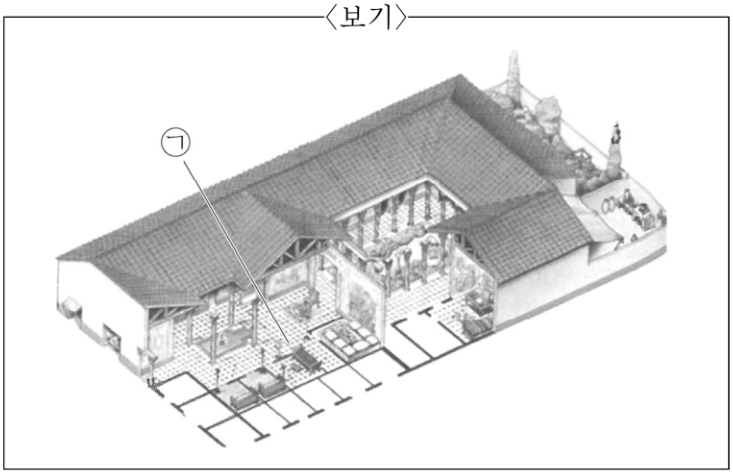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미국은 옴스테드와 하버드 1900년, 한국은 1970년대 초반, 일본은 조원, 중국은 원림이다.

NoteBase

3. 고대 로마 주택에서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첫 번째 중정으로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① 아트리움　② 호르투스
③ 아고라　④ 페리스틸리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로마 주택의 현관 바로 안쪽에 놓인 첫 번째 중정 공간을 평면상의 위치로 식별하는 문제이다. 그림의 ㉠은 출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중심 공간인 아트리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에서 현관을 통과한 뒤 처음 나타나는 중심 중정이자 접객·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그림의 ㉠처럼 주택 전면부의 출입축에 놓인다.
② X — 호르투스는 ㉠처럼 현관 안쪽의 첫 중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틀린 표현 '호르투스'는 올바르게는 '아트리움'이다. 호르투스는 주택 뒤쪽에 마련된 정원이나 채소밭을 뜻한다.
③ X — 아고라는 로마 주택 내부의 중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아고라'는 올바르게는 '아트리움'이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의 공공 광장이다.
④ X — 페리스틸리움은 ㉠처럼 현관에서 처음 만나는 전면 중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페리스틸리움'은 올바르게는 '아트리움'이다. 페리스틸리움은 주택 안쪽에 배치되고 주위에 열주가 둘러선 정원형 중정이다.

오답 포인트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은 모두 주택의 중정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현관 바로 뒤의 첫 중심 공간이면 아트리움이고, 주택 깊숙한 곳에서 열주가 정원을 둘러싸면 페리스틸리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마 주택 도식에서는 출입구부터 공간의 순서를 확인한다. 현관 직후의 전면 중심 중정은 아트리움, 그보다 뒤쪽의 열주식 정원 중정은 페리스틸리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관 다음 첫 중정은 아트리움, 뒤쪽 열주 정원은 페리스틸리움이다.

NoteBase

4. 치수 및 인출선의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수의 단위는 'mm'로 하며, 도면에 단위 표현은 하지 않는다.
② 치수선은 치수보조선에 직각이 되도록 긋는다.
③ 인출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하여 긋는다.
④ 조경설계에서 인출선은 수목명, 수목 개수, 규격 등을 기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치수선·치수보조선·인출선의 용도와 선의 굵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치수선은 치수의 범위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고, 치수보조선은 치수의 시작점과 끝점을 치수선까지 연장해 주는 선이다. 인출선은 도면의 특정 대상과 설명 문자를 연결하는 선이다. 치수선·치수보조선·인출선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치수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이며, 도면에는 일반적으로 단위 기호를 따로 적지 않는다.
② O — 치수선은 치수보조선에 직각이 되도록 그어 치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굵은 실선'이다. 인출선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④ O — 조경설계에서 인출선은 도면의 수목을 수목명, 수목 개수, 규격 등의 설명과 연결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인출선이 중요한 정보를 가리킨다는 이유로 굵은 선이라고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선의 중요도가 아니라 제도 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인출선은 가는 실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선의 기능을 구분한 뒤 선의 굵기를 확인한다. 치수선은 치수 표시, 치수보조선은 치수 범위의 연장, 인출선은 대상과 설명의 연결이며 세 선 모두 가는 실선이다.

암기 포인트

치수·보조·인출은 모두 가는 실선이다.

NoteBase

5. 〈보기〉는 조경 재료의 분류표이다. ㈎~㈑에 들어갈 재료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분류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	㈎
	인공 재료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무기 재료
	㈏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의한 분류	㈐
	수장 재료
	㈑
	기타 재료
공사 구분에 의한 분류	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조적 공사, 타일 공사, 방수 공사, 지붕 공사, 금속 공사, 미장 공사, 유리 공사, 도장 공사, 수장 공사, 설비 공사, 기타 잡공사 등의 공사에 각각 사용하는 재료로 구분

	㈎	㈏	㈐	㈑
①	천연 재료	유기 재료	구조 재료	설비 재료
②	천연 재료	구조 재료	유기 재료	설비 재료
③	유기 재료	구조 재료	천연 재료	설비 재료
④	설비 재료	천연 재료	구조 재료	유기 재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경 재료를 생산 방법, 화학 조성, 사용 목적·용도라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에 맞게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 자연에서 얻는 천연 재료와 가공·제조하여 만드는 인공 재료로 구분한다.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광물성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무기 재료와 탄소 화합물 계통의 유기 재료로 구분한다.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의한 분류: 구조 재료, 수장 재료, 설비 재료, 기타 재료로 구분한다.
따라서 (가)는 천연 재료, (나)는 유기 재료, (다)는 구조 재료, (라)는 설비 재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 천연 재료, (나) 유기 재료, (다) 구조 재료, (라) 설비 재료로 각 빈칸이 해당 분류 기준과 모두 일치한다.
② X — (가) 천연 재료와 (라) 설비 재료는 맞지만, (나)에 구조 재료를 넣고 (다)에 유기 재료를 넣은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화학 조성의 (나)가 유기 재료이고, 사용 목적·용도의 (다)가 구조 재료이다.
③ X — (가) 유기 재료, (나) 구조 재료, (다) 천연 재료는 각각 분류 기준이 뒤섞인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가) 천연 재료, (나) 유기 재료, (다) 구조 재료이며, (라) 설비 재료만 맞다.
④ X — (다) 구조 재료만 맞고, (가) 설비 재료, (나) 천연 재료, (라) 유기 재료는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 천연 재료, (나) 유기 재료, (라) 설비 재료이다.

오답 포인트

재료 명칭 자체보다 각 명칭이 속하는 분류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유기 재료는 화학 조성의 하위 항목이고, 구조 재료와 설비 재료는 사용 목적·용도의 하위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을 바로 맞추기보다 먼저 분류 축을 확인한다. 생산 방법은 천연·인공, 화학 조성은 무기·유기, 사용 목적·용도는 구조·수장·설비·기타의 짝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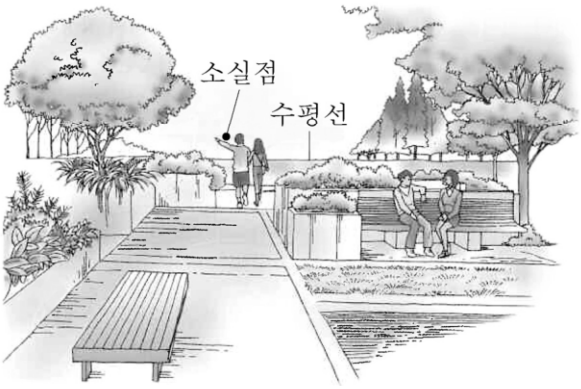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생산은 천연·인공, 조성은 무기·유기, 용도는 구조·수장·설비·기타이다.

NoteBase

6. 〈보기〉와 같은 도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개념도 ② 스케치
③ 조감도 ④ 투시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면에 표시된 수평선과 소실점을 근거로 표현 기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실제 공간에서 평행한 선이 소실점으로 모이도록 그려 깊이와 원근감을 나타낸 그림은 투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개념도는 계획의 기본 생각, 공간 구성, 기능 관계 등을 기호와 선으로 단순화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시된 그림처럼 소실점과 수평선을 이용해 공간의 원근감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도면을 개념도라고 한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투시도이다.

② X
스케치는 대상의 형태나 구상을 빠르고 자유롭게 그린 초벌 그림이다. 제시된 그림의 핵심은 단순한 초벌 표현이 아니라 소실점과 수평선을 적용한 원근 표현이므로, 올바르게는 투시도이다.

③ X
조감도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새의 시점으로 대상의 전체 배치와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제시된 그림은 보행자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수평선과 소실점을 중심으로 공간을 표현하므로 조감도가 아니며, 올바르게는 투시도이다.

④ O
투시도는 관찰자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수평선과 평행선이 모이는 소실점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공간과 거리감을 표현한다. 제시된 도면에 수평선과 소실점이 직접 표시되어 있으므로 투시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그림이 손으로 그린 듯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② 스케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분류의 결정적 단서는 그림의 제작 방식이 아니라 수평선과 소실점에 따라 선이 모이며 깊이가 표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아니므로 ③ 조감도와도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면에서 수평선, 소실점, 평행선의 수렴이 확인되면 투시도로 판단한다. 높은 시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전체 배치를 보여 주면 조감도, 생각과 관계를 기호화하면 개념도, 구상을 빠르게 그린 초벌 그림이면 스케치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수평선·소실점·선의 수렴은 투시도의 핵심 표지이다.

NoteBase

7. 고조선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도사 구룡지에 연지를 조성하였다.
② 노을왕이 유(囿)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③ 일본 아스카 시대 문화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④ 장안성과 안학궁 터에 정원의 유구가 존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조선 조경에 관한 기록과 삼국시대 이후의 정원·문화 유산을 시대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囿)는 울타리를 두르고 새나 짐승을 기르던 공간으로, 정원의 초기 형태로 본다. 『대동사강』에는 고조선의 노을왕이 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통도사 구룡지는 신라 때 창건된 통도사와 관련된 연못이므로 고조선의 조경 사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고조선의 조경'에 통도사 구룡지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신라 시대의 사찰 조경과 관련된 사례이다.
② O — 『대동사강』에는 고조선의 노을왕이 나라의 동산인 유(囿)를 만들어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전하므로 옳다.
③ X — 일본 아스카 시대 문화에 대한 영향은 고조선이 아니라 삼국시대, 특히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고조선이 일본 아스카 시대 문화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백제 등 삼국의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야 한다.
④ X — 장안성과 안학궁은 고구려의 도성·궁성 유적이므로 그곳의 정원 유구를 고조선 조경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고조선의 조경'에 장안성과 안학궁 터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고구려의 조경 유구와 관련된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한국 고대 조경사와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시대가 다르다. 통도사 구룡지는 신라, 아스카 문화에 대한 영향은 삼국시대 특히 백제, 장안성과 안학궁은 고구려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조선 조경을 묻는 문항에서는 '노을왕—유(囿)'의 기록을 먼저 찾고, 사찰명·일본 아스카 문화·고구려 궁성 유적처럼 후대의 단서가 붙은 선지는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조선은 노을왕의 유(囿), 고구려는 장안성과 안학궁, 신라는 통도사 구룡지로 구별한다.

NoteBase

8. 〈보기〉는 식재기능별 적용수종을 나타낸 표이다. (가)~(마)에 들어갈 식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수종 요구 특성	적용수종
(가)	지엽이 치밀하고, 전정에 강하며, 생장이 빠르지만 유지 관리가 쉬운 상록수	향나무 · 서양측백 · 화백 · 호랑가시나무 · 광나무
(나)	지하고가 높고, 병충해나 공해에 강한 수종	가중나무 · 느티나무 · 회화나무 · 칠엽수 · 참느릅나무 · 벽오동
(다)	수형이 단정하고 꽃 · 열매 · 단풍 등이 특징적으로 의미 있어 식별성이 높은 수종	계수나무 · 주목 · 구상나무 · 금송 · 솔송나무 · 피나무
(라)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하며, 아랫가지가 고사하지 않고, 전정 관리가 용이한 수종	주목 · 서양측백 · 화백
(마)	잎이 넓고 두꺼우며 밀생하고, 함수량이 많은 수종	은행나무 · 식나무 · 호랑가시나무 · 사철나무

	(가)	(나)	(다)	(라)	(마)
①	경관 식재	유도 식재	경사면 식재	경계 식재	방풍 식재
②	경관 식재	유도 식재	지표 식재	차폐 식재	방화 식재
③	경계 식재	녹음 식재	경관 식재	경사면 식재	방설 식재
④	경계 식재	녹음 식재	지표 식재	차폐 식재	방화 식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에 제시된 수종 요구 특성과 적용 수종을 근거로 식재의 기능을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행의 수형·지엽·관리 특성을 확인한다.
2. 그 특성이 만드는 기능을 경계·녹음·지표·차폐·방화 중에서 찾는다.
3. (가)부터 (마)까지의 배열을 선지와 대조한다.

핵심 근거

(가)는 치밀한 지엽과 전정 용이성이 경계를 만드는 데 적합하므로 경계 식재이다. (나)는 높은 지하고와 병충해·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그늘을 제공하는 녹음 식재이다. (다)는 꽃·열매·단풍 등이 특징적이고 식별성이 높으므로 지표 식재이다. (라)는 낮은 지하고와 치밀한 지엽으로 시선을 막으므로 차폐 식재이다. (마)는 넓고 두꺼운 잎, 밀생한 수관, 많은 함수량을 갖추므로 방화 식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경관 식재, (나)를 유도 식재, (다)를 경사면 식재, (라)를 경계 식재, (마)를 방풍 식재로 연결한 부분이 표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각각 경계 식재, 녹음 식재, 지표 식재, 차폐 식재, 방화 식재이다.
② X — (다) 지표 식재, (라) 차폐 식재, (마) 방화 식재는 맞지만, (가)의 '경관 식재'와 (나)의 '유도 식재'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경계 식재, (나) 녹음 식재이다.
③ X — (가) 경계 식재와 (나) 녹음 식재는 맞지만, (다)의 '경관 식재', (라)의 '경사면 식재', (마)의 '방설 식재'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 지표 식재, (라) 차폐 식재, (마) 방화 식재이다.
④ O — (가) 경계 식재, (나) 녹음 식재, (다) 지표 식재, (라) 차폐 식재, (마) 방화 식재로 표의 요구 특성과 모두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가)와 (라)는 모두 지엽이 치밀하고 전정이 쉽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가)는 생장이 빠른 상록수로 경계를 만들기 위한 식재이고, (라)는 낮은 지하고와 고사하지 않는 아랫가지로 시선을 막는 차폐 식재이다. 또한 (다)의 '의미와 식별성이 높은 수형'은 단순한 경관 감상이 아니라 위치나 장소를 인식시키는 지표 기능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치밀한 상록수와 전정 용이는 경계, 높은 지하고와 큰 수관은 녹음, 특징적인 꽃·열매·단풍과 높은 식별성은 지표, 낮은 가지와 치밀한 지엽은 차폐, 넓고 두꺼운 잎과 많은 함수량은 방화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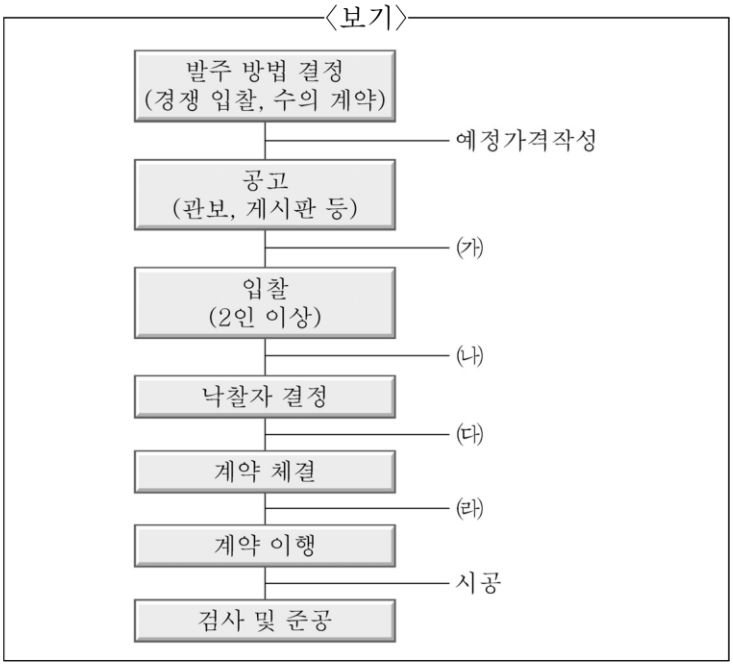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경계는 선을 만들고, 녹음은 그늘을 만들며, 지표는 눈에 띄고, 차폐는 시선을 막고, 방화는 수분 많은 잎으로 불길을 줄인다.

NoteBase

9. 〈보기〉는 공사 계약 절차를 안내하는 그림이다. ㈎~㈑에 들어갈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	㈐	㈑
①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	낙찰 적격 여부 심사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입찰 보증금 납부
②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낙찰 적격 여부 심사	입찰 보증금 납부
③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낙찰 적격 여부 심사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
④	입찰 보증금 납부	낙찰 적격 여부 심사	입찰 참가 자격 심사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사 계약 절차에서 입찰 보증,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낙찰 적격 여부 심사, 계약 이행 보증이 각각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를 묻는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발주 방법 결정 → 예정가격 작성 → 공고 → (가)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 → (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 낙찰자 결정 → (다) 낙찰 적격 여부 심사 → 계약 체결 → (라)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 → 계약 이행 → 시공 → 검사 및 준공

입찰 보증금은 입찰 단계에 대응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에 대응한다. 또한 참가 자격 심사와 낙찰 적격 여부 심사를 구분하여 그림의 입찰·낙찰 단계에 맞추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에 계약 이행 보증금을 두고 (라)에 입찰 보증금을 둔 것이 반대이며, 참가 자격 심사와 낙찰 적격 여부 심사의 자리도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가) 입찰 보증금 납부, (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다) 낙찰 적격 여부 심사, (라)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이다.

② X — 입찰 전후의 (가)에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배치하고 계약 이행 전의 (라)에 입찰 보증금을 배치한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가)에 입찰 보증금 납부, (라)에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가 들어가며, 전체 배열은 (가) 입찰 보증금 납부 → (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 (다) 낙찰 적격 여부 심사 → (라)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이다.

③ O — 입찰 단계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와 입찰 참가 자격 심사가 연결되고, 낙찰자 결정 단계에는 낙찰 적격 여부 심사가, 계약 체결 뒤 이행 단계에는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가 연결되므로 그림의 네 빈칸과 모두 맞는다.

④ X — (가)와 (라)는 맞지만 (나)의 낙찰 적격 여부 심사와 (다)의 입찰 참가 자격 심사가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다) 낙찰 적격 여부 심사이다.

오답 포인트

입찰 보증금과 계약 이행 보증금의 명칭이 비슷해 위치를 바꾸기 쉽고, 입찰 참가 자격 심사와 낙찰 적격 여부 심사도 모두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④는 보증금의 위치는 맞지만 두 심사 절차만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입찰'과 '계약 이행'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계약 이행에는 계약 이행 보증금을 대응시킨 뒤, 입찰 참가 자격 심사와 낙찰 적격 여부 심사를 각각 입찰·낙찰 단계에 배치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입찰에는 입찰 보증, 이행에는 이행 보증, 참가 자격은 입찰 단계, 낙찰 적격은 낙찰 단계이다.

NoteBase

10. 중세 서구의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세 서구의 정원은 환경,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독특한 주택정원, 분묘정원, 신전정원을 조영하였다.

② 스페인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중앙을 중심축으로 하고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만들고 정형식으로 조성되었다.

③ 인도에 위치한 알함브라 궁원은 대표적인 이슬람 정원이며 알함브라는 '붉은 성(red castle)'이라는 아라비아어로, 궁전의 주요 시설이나 성채를 적색 벽돌로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

④ 수도원 정원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을 4개로 구획하여 에덴동산을 상징하고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약초원, 채소원, 과수원 등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정원으로 조성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서양 정원의 시대·지역별 특징을 구분하고, 주택·분묘·신전 정원, 수로 중심의 정형식 정원, 알함브라 정원, 수도원 정원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대 이집트 정원: 자연환경과 종교·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주택정원, 분묘정원, 신전정원이 발달하였다.
페르시아 정원: 중심축과 수로를 바탕으로 질서 정연한 정형식 구성을 취하였다.
알함브라 정원: 스페인 그라나다에 조성된 대표적인 이슬람 정원이다.
수도원 정원: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을 중심으로 약초·채소·과수 등을 재배하여 종교적 상징성과 자급적 실용성을 함께 지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중세 서구'이다. 주택정원·분묘정원·신전정원이 독특하게 발달한 것은 고대 이집트 정원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환경·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주택정원, 분묘정원, 신전정원이 조성되었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스페인의 정원'이다. 건물을 중심축으로 삼고 풍부한 물로 수로를 조성한 정형식 정원은 페르시아 정원의 대표적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페르시아 정원은 중심축과 수로를 이용한 정형식으로 조성되었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인도에 위치한'이다. 알함브라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정원이며, 명칭은 '붉은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올바르게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위치한 알함브라 정원'이다.
④ O — 수도원 정원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을 네 부분으로 구획하여 에덴동산을 상징하고, 약초·채소·과수 등을 재배해 수도원의 자급자족에 기여한 실용적 정원이었다.

오답 포인트

각 선지는 정원의 실제 특징을 제시하면서 시대나 지역 이름만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①의 '중세 서구', ②의 '스페인', ③의 '인도'가 함정이며, 특징과 지역을 한 묶음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택·분묘·신전은 고대 이집트, 중심축·수로·정형식은 페르시아, 알함브라는 스페인 그라나다, 회랑·중정·약초원·자급성은 중세 수도원 정원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이집트는 주택·분묘·신전, 페르시아는 축·수로, 알함브라는 스페인, 수도원은 회랑·중정·자급이다.

NoteBase

11. 방풍용 수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풍용 수목으로는 곰솔, 후박나무 등이 있다.
② 심근성이면서 줄기와 가지가 강인하고 지엽이 치밀한 상록수가 바람직하다.
③ 일반적으로 방풍 수림대는 수고를 높게 하고 너비를 좁게 해야 효과가 크다.
④ 방풍림은 바람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바닷가의 염분이나 모래의 비산을 막아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방풍용 수목의 적합한 특성과 방풍 수림대의 조성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풍림은 강한 바람의 속도를 낮추고 바닷가의 염분이나 모래가 안쪽으로 날아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 조성하는 수림이다. 방풍용 수목은 강풍에 잘 견디는 심근성·강한 줄기와 가지·치밀한 지엽 등의 특성이 필요하며, 수림대는 충분한 폭과 연속성을 갖추어 바람을 완화하도록 조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곰솔과 후박나무는 해안의 강한 바람과 염해에 비교적 잘 견뎌 방풍용 수목으로 이용된다.
② O — 뿌리가 깊은 심근성 수목은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작고, 줄기와 가지가 강하며 지엽이 치밀한 상록수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너비를 좁게 해야 효과가 크다'이다. 수고가 높으면 보호할 수 있는 거리가 커지지만, 수림대의 너비는 좁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 여러 줄의 수목이 안정적으로 바람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④ O — 방풍림은 풍속을 낮추어 바닷가의 염분과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비산하는 것을 막거나 줄인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고를 높게'라는 맞는 내용 뒤에 '너비를 좁게'라는 잘못된 조건을 붙인 선지이다. 방풍 범위와 관련된 수고의 효과만 보고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 자체는 강풍에 견디는 뿌리·줄기·가지와 바람을 걸러 주는 지엽을 확인하고, 수림대 구조는 높이뿐 아니라 충분한 폭과 연속성이 확보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방풍수는 깊은 뿌리·강한 줄기와 가지·치밀한 지엽, 방풍림은 높은 수고·충분한 폭으로 정리한다.

NoteBase

12.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수종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경관 조성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기존의 블록 담장을 제거한 후 산울타리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정에 잘 견디는 관목성 수종 중에서 ㉠ 낙엽성 수종과 ㉡ 상록성 수종을 각각 한 종씩 심기로 하였다.

	㉠	㉡
①	개나리	회양목
②	꽝꽝나무	사철나무
③	광나무	은행나무
④	느티나무	탱자나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경수목을 낙엽성 수종과 상록성 수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낙엽성 수종은 계절에 따라 잎이 떨어지는 수종이고, 상록성 수종은 사계절 잎을 유지하는 수종이다. 이 문제에서는 ㄱ에 낙엽성 수종, ㄴ에 상록성 수종이 와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개나리는 낙엽성 관목이고 회양목은 상록성 관목이므로 ㄱ과 ㄴ의 조건에 각각 맞는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ㄱ의 '꽝꽝나무'이다. 꽝꽝나무와 사철나무는 모두 상록성 수종이므로, 올바르게는 ㄱ에 개나리·느티나무와 같은 낙엽성 수종이 와야 한다.
③ X — 광나무는 상록성 수종이고 은행나무는 낙엽성 수종이므로 두 수종의 배치가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ㄱ에 은행나무, ㄴ에 광나무를 배치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ㄴ의 '탱자나무'이다. 느티나무와 탱자나무는 모두 낙엽성 수종이므로, 올바르게는 ㄴ에 회양목·사철나무·광나무와 같은 상록성 수종이 와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낙엽성 수종과 상록성 수종을 정확히 한 종씩 제시하지만 순서를 뒤바꾼 선지이다. ㄱ은 낙엽성, ㄴ은 상록성이라는 보기의 순서를 놓치면 ③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빈칸이 요구하는 성질을 고정한 뒤, 각 수종을 낙엽성과 상록성으로 하나씩 분류하여 순서까지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개나리·은행나무·느티나무·탱자나무는 낙엽성, 회양목·꽝꽝나무·사철나무·광나무는 상록성이다.

NoteBase

13. 〈보기〉에서 중국의 조경 중 송시대의 「소상팔경도」의 내용과 설명을 옳게 짝지은 구분(경)은?

〈보기〉

구분(경)	내 용	설 명
1경	산시청람 (山市晴嵐)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는 풍경
2경	연사모종 (煙寺暮鐘)	연무에 쌓인 산사의 저녁 종소리
3경	소상야우 (瀟湘夜雨)	멀리 포구로 돌아가는 돛단배들
4경	원포귀범 (遠浦歸帆)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
5경	평사낙안 (平沙落雁)	산간 마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풍경
6경	동정추월 (洞庭秋月)	동정호에 비친 가을 달
7경	어촌석조 (漁村夕照)	저녁 때 강변에 눈 내리는 풍경
8경	강천모설 (江天暮雪)	저녁 노을로 물든 어촌 풍경

① 1경과 5경　② 2경과 6경
③ 3경과 7경　④ 4경과 8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상팔경도의 각 경명에 들어 있는 장소·시간·기상·경물의 뜻을 실제 풍경 설명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상팔경도는 중국 소상 지역의 대표적인 여덟 풍경을 그린 전통 산수화 주제이다. 경명의 한자를 풀면 연사모종은 안개 낀 절의 저녁 종소리, 동정추월은 동정호의 가을 달을 뜻한다. 이처럼 경명 속 핵심어인 연사·모종, 동정·추월, 야우·귀범·낙안·석조·모설을 설명의 경물과 대조하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경 산시청람(山市晴嵐)은 산시의 맑게 갠 안개 풍경으로,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는 풍경'은 소상야우(瀟湘夜雨)의 설명이다. 5경 평사낙안(平沙落雁)은 평평한 모래톱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풍경으로, '산간 마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풍경'은 산시청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1경과 5경은 모두 잘못 연결되었다.
② O — 2경 연사모종(煙寺暮鐘)은 안개에 싸인 절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이고, 6경 동정추월(洞庭秋月)은 동정호에 비친 가을 달이다. 두 설명이 모두 경명과 일치한다.
③ X — 3경 소상야우(瀟湘夜雨)는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의 풍경이며, '멀리 포구로 돌아가는 돛단배들'은 원포귀범(遠浦歸帆)의 설명이다. 7경 어촌석조(漁村夕照)는 저녁놀에 비친 어촌 풍경이며, '저녁때 강변에 눈 내리는 풍경'은 강천모설(江天暮雪)에 해당한다. 따라서 3경과 7경은 모두 잘못 연결되었다.
④ X — 4경 원포귀범(遠浦歸帆)은 먼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풍경이며,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는 평사낙안(平沙落雁)의 설명이다. 8경 강천모설(江天暮雪)은 저녁 무렵 강과 하늘에 내리는 눈의 풍경이며, '저녁노을로 물든 어촌 풍경'은 어촌석조(漁村夕照)에 해당한다. 따라서 4경과 8경은 모두 잘못 연결되었다.

오답 포인트

표의 설명들이 무작위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소상팔경의 설명과 서로 바뀌어 있다. 특히 3경과 4경의 야우·귀범, 7경과 8경의 석조·모설을 번호 순서만으로 기억하면 ③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명을 장소와 현상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모종은 저녁 종소리, 추월은 가을 달, 야우는 밤비, 귀범은 돌아오는 돛배, 낙안은 내려앉는 기러기, 석조는 저녁놀, 모설은 저녁 눈을 뜻하므로 설명의 핵심 명사와 바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연사-저녁 종, 동정-가을 달, 소상-밤비, 원포-귀선, 평사-낙안, 어촌-석조, 강천-모설로 연결한다.

NoteBase

14. 〈보기 1〉에서 설명하는 조경 식물 생산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번식을 목적으로 식물체의 일부분인 잎, 가지, 뿌리 등을 이용하여 부정근과 부정아를 발생시켜 독립된 개체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보기 2〉

ㄱ. 왜성화할 수도 있다.
ㄴ. 기술적으로 다소 어렵다.
ㄷ. 친화성이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
ㄹ. 천근성이 되기 쉽고 건조에 약해질 수도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영양번식의 일반적 특징과 접목에만 해당하는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양번식은 잎·가지·뿌리 등 영양기관을 이용하여 모체와 같은 유전적 특성을 지닌 개체를 늘리는 무성번식 방법이다. 노화한 식물체를 다시 왕성한 생육 상태로 되돌리는 회춘이 가능하고, 실생묘보다 뿌리가 얕게 형성되어 건조에 약해질 수 있다. 반면 친화성은 접수와 대목의 결합 여부를 좌우하는 접목의 조건이므로 영양번식 전체의 공통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회춘화할 수도 있다'는 옳지만, ㄷ의 '친화성이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는 영양번식 전체가 아니라 접목에 한정되는 조건이다. 틀린 ㄷ을 ㄹ로 고치면 옳은 조합인 ㄱ, ㄹ이 된다.
② O — ㄱ의 회춘 가능성과 ㄹ의 천근성 및 건조 취약 가능성은 모두 영양번식의 특징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③ X — ㄴ의 '기술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영양번식 전체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없고, ㄷ의 친화성 조건도 접목에만 해당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 아니라 ㄱ, ㄹ이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의 '친화성이 있는 것끼리만'이라는 표현은 접목의 조건을 영양번식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ㄷ을 ㄱ으로 고치면 옳은 조합인 ㄱ, ㄹ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의 '친화성'은 접목에서 접수와 대목이 정상적으로 결합·생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접목도 영양번식의 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이 조건을 삽목·취목·분주 등 모든 영양번식에 적용하면 틀린다. 또한 특정 영양번식법에 숙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영양번식 전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양번식의 공통 특징인지 특정 방법의 조건인지 먼저 구별한다. '접수·대목·친화성'은 접목에 한정하고, 일반적 특징에서는 회춘 가능성과 얕은 뿌리에 따른 건조 취약성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영양번식은 회춘 가능·천근성 주의, 친화성은 접목의 조건이다.

NoteBase

15. 석재의 표면 가공 방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혹두기 – 정다듬 – 잔다듬 – 도드락다듬 – 물갈기
②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
③ 혹두기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정다듬 – 물갈기
④ 혹두기 – 도드락다듬 – 정다듬 – 잔다듬 – 물갈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석재 표면 가공이 큰 요철을 제거하는 거친 작업에서 표면을 고르게 하고 광택을 내는 정밀 작업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혹두기 — 석재 표면의 큰 돌출부와 요철을 거칠게 제거한다.
2. 정다듬 — 정으로 쪼아 표면을 한층 평탄하게 다듬는다.
3. 도드락다듬 — 도드락망치로 고르게 두드려 정다듬보다 촘촘한 표면을 만든다.
4. 잔다듬 — 더 미세하게 다듬어 표면의 거친 자국을 줄인다.
5. 물갈기 — 물과 연마재를 이용해 표면을 곱게 갈고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큰 요철을 먼저 제거한 뒤 도구와 가공 자국을 점차 미세하게 줄여야 마지막 물갈기로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잔다듬 → 도드락다듬'의 선후가 바뀌었다. 도드락다듬으로 표면을 고르게 만든 뒤 더 미세한 잔다듬을 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이다.

② O — 혹두기에서 시작하여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을 거쳐 물갈기로 마치는 순서가 거친 가공에서 정밀 가공으로 진행되는 원칙에 맞는다.

③ X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정다듬'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정다듬은 도드락다듬과 잔다듬보다 먼저 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이다.

④ X — '도드락다듬 → 정다듬'의 선후가 바뀌었다. 정다듬으로 먼저 표면을 정리한 뒤 도드락다듬을 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다듬·도드락다듬·잔다듬은 이름만으로 정밀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순서를 바꾸기 쉽다. 특히 ①은 정다듬의 위치는 맞지만 도드락다듬과 잔다듬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석재 가공 순서는 '큰 요철 제거 → 정으로 평탄화 → 도드락망치로 고른 가공 → 미세 다듬기 → 물을 사용한 연마'처럼 가공 자국이 점차 작아지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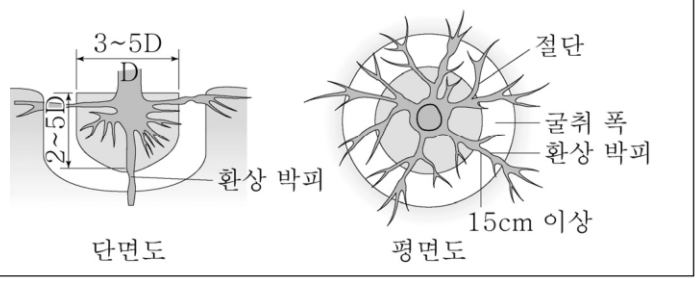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혹-정-도-잔-물: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이다.

NoteBase

16. 〈보기〉와 같은 수목의 뿌리돌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① 이식하기 최소 1개월 전 겨울에 작업을 해야 한다.
② 이식 후 활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③ 부적기에 이식을 해야할 때 뿌리돌림 작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
④ 노목이나 보호수는 2~4회 나누어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줄기 지름의 3~5배 범위를 깊이 2~5배로 파고, 굵은 뿌리를 절단하여 잔뿌리의 발생을 유도하는 뿌리돌림의 목적·시기·방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뿌리돌림은 이식 전에 뿌리를 미리 끊어 근원부 가까이에 새 잔뿌리가 형성되게 하는 작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식하기 최소 1개월 전'이 잘못되었다. 뿌리를 끊은 뒤 새 잔뿌리가 충분히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뿌리돌림은 일반적으로 이식하기 최소 1년 전 겨울에 시행한다.
② O — 이식 전에 잔뿌리를 근원부 가까이에 발달시키므로, 이식할 때 뿌리의 손실과 활착 부담을 줄여 이식 후 활착을 좋게 한다.
③ O — 부적기에 이식해야 하는 경우에도 미리 뿌리돌림을 하여 새 잔뿌리를 확보하면 이식 충격을 줄이고 활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④ O — 노목이나 보호수는 뿌리를 한꺼번에 많이 절단하면 수세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으므로, 뿌리 둘레를 2~4회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뿌리돌림을 시행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시행 계절인 '겨울'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핵심 함정은 '1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다. 뿌리돌림은 절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단 뒤 잔뿌리가 충분히 재생되도록 하는 작업이므로, 이식 직전의 짧은 기간에 시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뿌리돌림 문항에서는 먼저 목적이 '이식 전 잔뿌리 발생과 활착 촉진'인지 확인한다. 이어서 시행 시기가 이식 직전이 아니라 충분히 앞선 시점인지, 노목·보호수는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뿌리돌림은 이식 최소 1년 전, 잔뿌리 유도, 노목·보호수는 2~4회 연차 시행으로 정리한다.

NoteBase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정원 양식과 이에 해당하는 정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무로마치 시대에 확립된 정원 양식
- 선(禪)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원 양식으로 자연경관의 상징화 또는 추상화를 표현
- 암석으로 폭포나 섬을 형상화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래 무늬로 물의 흐름 또는 바다를 형상화함

① 침전형 – 신천원　② 정토식 – 평등원
③ 회유식 – 계리궁　④ 고산수식 – 용안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기의 설명에서 무로마치 시대, 선종 사상, 암석과 모래를 이용한 자연경관의 추상적 표현을 찾아 고산수식 정원과 대표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산수식 정원은 실제 연못이나 물을 두지 않고 돌로 산·섬 등을, 모래나 자갈로 물의 흐름과 바다를 상징하는 일본의 건조 정원 양식이다. 용안사는 암석과 흰 모래로 구성된 대표적인 고산수식 정원이다.
침전형은 귀족의 침전을 중심으로 연못과 건물을 배치한 양식이며 신천원이 대표 사례이다.
정토식은 불교의 극락정토를 연못과 사찰 건축으로 구현한 양식이며 평등원이 대표 사례이다.
회유식은 넓은 연못과 정원을 걸으며 여러 경관을 감상하도록 구성한 양식이며 계리궁이 대표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침전형－신천원은 침전형 정원의 대표 연결이지만, 보기의 암석·모래 중심 추상 정원을 가리키지 않는다. 보기의 양식은 침전형이 아니라 고산수식이고, 해당 대표 정원은 용안사이다.
② X — 정토식－평등원은 극락정토를 구현한 정원 양식의 대표 연결이지만, 보기의 선종 사상과 건조한 암석·모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의 양식은 정토식이 아니라 고산수식이고, 해당 대표 정원은 용안사이다.
③ X — 회유식－계리궁은 정원을 걸으며 경관을 감상하는 회유식의 대표 연결이지만, 보기에서 설명한 무로마치 시대의 선종계 추상 정원은 아니다. 보기의 양식은 회유식이 아니라 고산수식이고, 해당 대표 정원은 용안사이다.
④ O — 고산수식－용안사의 연결이 보기와 일치한다. 용안사는 돌과 모래로 산수 경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고산수식 정원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부터 ③까지도 양식과 대표 정원의 연결 자체는 성립하므로 단순한 짝 맞추기로 접근하면 혼동하기 쉽다. 먼저 보기의 암석, 모래, 물 없는 추상적 산수 표현이라는 결정적 단서로 고산수식을 판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물 없이 돌과 모래로 산·섬·바다를 상징하면 고산수식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대표 정원인 용안사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무로마치·선종·돌과 모래·물 없는 산수 표현은 고산수식, 대표 정원은 용안사이다.

NoteBase

18. 조경 수목의 병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뿌리혹병은 선충에 의해 발생한다.
②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③ 대부분의 수목병은 세균(bacteria)에 의해 발생한다.
④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요 수목병과 그 병원체의 연결이 올바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목병은 병원체에 따라 진균성·세균성·바이러스성·파이토플라스마성 등으로 구분한다. 뿌리혹병은 세균,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와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수목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진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선충에 의해 발생한다'이다. 뿌리혹병은 세균인 뿌리혹병균에 의해 발생한다. 선충은 뿌리혹선충병 등 선충성 피해를 일으키지만 뿌리혹병의 병원체는 아니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이다.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부분의 수목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이다. 실제로 수목병의 대부분은 진균에 의해 발생하며, 세균성 수목병은 그보다 적다.
④ O —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 발생한다. 파이토플라스마는 식물의 체관부에 기생하는 세포벽 없는 병원체로, 가지가 빗자루처럼 무더기로 나오는 증상을 일으킨다.

오답 포인트

병 이름의 비슷한 표현 때문에 병원체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①의 뿌리혹병과 뿌리혹선충병은 서로 다른 병이며, ②의 '모자이크'는 곰팡이보다 바이러스병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병명에서 병원체를 암시하는 핵심어를 먼저 찾는다. '모자이크'는 바이러스,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를 우선 연결하고, 뿌리혹병과 뿌리혹선충병은 별개의 병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뿌리혹병은 세균,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이다.

NoteBase

19. 골프장 잔디 중 깎는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① 티 ② 그린

③ 러프 ④ 페어웨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골프장 잔디 관리 구역별 깎는 높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깎는 높이는 예초 후 남겨 두는 잔디의 높이이다. 그린은 공의 원활한 구름을 위해 매우 낮게 관리하고, 러프는 경기 구역의 경계를 형성하고 공략 난도를 높이기 위해 페어웨이·티보다 잔디를 길게 남겨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티는 공을 처음 치는 구역으로 잔디를 비교적 짧고 고르게 관리하므로 깎는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다. '티'는 '러프'로 고쳐야 한다.

② X — 그린은 퍼팅을 위해 잔디를 가장 짧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구역이다. '그린'은 '러프'로 고쳐야 한다.

③ O — 러프는 페어웨이 바깥쪽의 잔디를 길게 유지하는 구역이므로 네 구역 중 깎는 높이가 가장 높다.

④ X — 페어웨이는 공을 치기 쉽도록 러프보다 낮게 깎아 관리하므로 깎는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다. '페어웨이'는 '러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깎는 높이'를 잔디를 얼마나 많이 잘라 내는지로 해석하면 그린을 고르기 쉽다. 이 표현은 잘라 낸 양이 아니라 예초 후 남는 잔디 높이를 뜻하므로, 잔디가 가장 긴 러프가 정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구역별 예초 문제에서는 공을 굴리는 그린은 가장 낮게, 경기 난도를 높이는 러프는 가장 높게 관리한다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그린은 짧게, 러프는 길게 관리한다.

NoteBase

20. 잔디에서 〈보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보충해 주어야 할 비료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잔디의 발아와 발근이 부족하고 생육이 불량하며, 잎이 진한 녹색으로 변하고, 생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① 요소, 석회질소　② 염화칼륨, 황산칼륨
③ 용과린, 황산암모늄　④ 용성인비, 과인산석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잔디의 결핍 증상으로 부족한 비료 성분을 판별하고, 그 성분을 공급하는 비료끼리 묶인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산 결핍: 뿌리 발달과 분얼이 저해되고 생육이 불량해지며, 잎이 진한 녹색을 띠고 생장이 정체될 수 있다.
질소질 비료: 요소, 석회질소, 황산암모늄이 대표적이다.
인산질 비료: 용과린, 용성인비, 과인산석회가 대표적이다.
칼리질 비료: 염화칼륨, 황산칼륨이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요소와 석회질소는 모두 질소질 비료이다. 이 증상에 필요한 인산질 비료가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용성인비와 과인산석회처럼 인산질 비료끼리 골라야 한다.
② X —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은 모두 칼리질 비료이다. 이 증상에 필요한 인산을 보충하지 못하므로, 올바르게는 용성인비와 과인산석회를 선택해야 한다.
③ X — 용과린은 인산질 비료이지만 황산암모늄은 질소질 비료이다. 틀린 표현은 '황산암모늄'이며, 이를 용성인비나 과인산석회와 같은 인산질 비료로 바꾸어야 두 비료가 모두 인산을 공급한다.
④ O — 용성인비와 과인산석회는 모두 인산질 비료이다. 제시된 인산 결핍 증상을 보완하는 비료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③에는 인산질 비료인 용과린이 들어 있어 정답처럼 보이지만, 함께 묶인 황산암모늄은 질소질 비료이다. 문제의 '모두'라는 조건 때문에 한 가지라도 다른 성분의 비료가 섞이면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얼·발근 불량과 진녹색 잎, 생장 정체가 함께 나타나면 인산 결핍을 먼저 판단한다. 이어 각 선지의 비료를 질소질·인산질·칼리질로 분류하고, 인산질 비료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을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산 부족은 '뿌리·분얼 약화, 진녹색, 생장 정체'이고, 용성인비·과인산석회는 인산질 비료이다.

NoteBase